

##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관상동맥 우회술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흉부외과  
지현근·이원용·김응중·홍기우

급성 심근경색은 내과적 치료만으로는 사망률이 10%에 달하는 질환으로서 특히 급성 심근경색후 협심증의 경우 이것이 심실성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확대 및 좌심실 기능 부전의 전조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과거에는 심근경색환자에 대한 수술 사망률이 높아 심근경색후 조기에 수술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심근보호법 및 수술 수기의 발달로 좋은 성적이 발표되고 있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는 1994년 11월 부터 1996년 8월까지 내원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중 15명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경색후 1개월 이내에 조기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하였다. 환자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60.7세였다. 급성 심근경색후 관상동맥 우회술까지의 기간은 7일부터 24일까지로 평균 12.4일이었다. 심근경색은 Q wave MI가 10명 이었으며 non Q wave MI가 5명이었다. 한편 경색부위는 하벽부가 9례, 전벽 및 중격부위가 6례였다.

수술중 원위부 문합은 모두 대동맥을 차단한 후 시행하였으며 심근보호는 warm cardioplegia 와 cold cardioplegia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평균 대동맥 차단시간은 106분이었으며 체외순환시간은 253분이었으며 환자당 평균 3.9개의 원위부 문합을 시행하였다. 수술전 IABP를 삽입한 경우는 없었으며 수술중에는 심폐기 이탈을 위해서 2명에게 IABP를 사용하였다.

1명의 환자가 수술후 21일째 급작스러운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여 사망률은 6.7%(1/15) 였으며 수술 후 합병증은 perioperative myocardial infarction이 2례, ventricular arrhythmia가 2례있었다. 수술후 추적기간은 평균 13.9개월로 모두 외래에서 추적진료 중이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협심증이나 심각한 관상동맥 경화증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직후라도 선택수술 (elective CABG)에 비하여 특별한 위험요소의 증가없이 조기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